



# 지진은 아닌데 땅이 흔들려...

### 지난 26일 제주 동부일대 흔들림 신고 13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경험담 다수 올라와 경찰 “당시 지진 없어... 아직 원인 파악 안돼”

제주지역에서 지진이 관측되지 않았는데도 건물 흔들림 등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와 제주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17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주민 신고를 소방당국이 접수했다. 이 신고를 포함해 비슷한 시각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성산읍 등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흔들림을 느꼈다는 주민 신고가 총 13건 들어왔다.

또 도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성산을 도로에 차를 주차해서 자고 있는데 차가 두 번 흔들려 잠에

서 깰다'거나 '집에 있는데 흔들려 급히 집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창문이 흔들렸다'는 등 다수의 경험담이 게시됐다. 다만 흔들림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의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제주 주변에서 지진이 관측된 적은 없었다. 또 채석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발과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제주도는 이날 오전 구좌체육공원에서 진행된 '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에서 폭음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폭음탄 영향에 따른 진동 신고로 추정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

명됐다. 당시 훈련에 참여한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훈련에서 폭음탄을 터뜨린 적은 없으며 폭발물 제거에 동원되는 물 사출기 분쇄기를 이용해 물포를 쏘았다"며 "물포를 발사할 때 큰 소음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진동을 동반하지 않고, 폭음탄과 달리 화약을 사용해 발사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재난상황실 관계자도 "당시 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에 확인한 결과 훈련은 넓은 운동장에서 진행됐으며 주변에 민가도 없고 훈련 과정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만한 충격파도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 훈련은 동부지역에서 흔들림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진행돼 현재로서는 둘 간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 흔들림 신고가 다수 들어왔는지 그 원인은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이제 4월인데... 28일 제주도 한경면 판포리 포구를 찾은 관광객들이 조금은 이른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정부 기관 임원 사칭 '스미싱' 극성

### 최근 부고 문자 일제히 발송... 해당 기관 "연락처 해킹된 것"

최근 모 정부기관 직원 연락처가 해킹된 것으로 알려진 후 부고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6일 제주지역에 위치한 모 기관의 임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날 별세했다는 문자가 일제히 발송됐다.

기자도 문자를 받아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 임원의 연락처를 해킹한 스미싱 문자라며 문자의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는 권유하고 해당 임원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부고장 스미싱 문자를 받은 이들의 문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미싱(SMShing)이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Phishing) 공격을 일컫는 용어로 문자 메시지 속 URL을 클릭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시스템이 해킹돼 재산피해 등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팸 차단 앱 '후후'가 밝힌 스미싱 문자는 지난해 1분기 22만건에서 4분기 36만건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보내지며 원격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낸 후에는 곧바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서 문자 전송 기록을 지워버려 피해자들은 자신이 스미싱에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모르는 전화번호의 경우 절대 링크를 누르면 안된다.

최근에는 스미싱 문자 종류도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접수 문자, 청첩장, 모임 공지, 택배문자, 주정차 위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출석요구 안내, 소독세 미납안내, 건강보험공단, 독

도는 우리땅 투표 등 30여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오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혹시라도 링크를 눌렀으면 폰뱅킹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가서 악성코드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용자가 수신 문자의 링크를 누르기 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스미싱 문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참고할만 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보호나라'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고 보호나라 채널 내 스미싱을 누르고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복사해 채팅창에 넣으면 정상, 주의, 악성 등으로 표시된다.

위영기기자 yswi1988@ihalla.com

# 제주 지난해 보험범죄 69건 적발

### 경찰·금감원 유기적 공조로 100명 검거

지난해 제주에서 69건의 보험범죄가 적발되면서 제주경찰청이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범죄 69건이 발생해, 100명이 검거됐다.

이 기간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9차레나 유발하며 약 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7명을 붙잡았고, 피해금 2200만원을 환수했다.

보험범죄가 조직적이고 능숙화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26일 금융감독원 및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논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는 병원과 중개인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 충돌 등 그간 발생한 보험범죄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청의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련 범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경찰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중·고교 수돗물 이물질에 급식 중단

### 이물 연속 발견돼 빵으로 대체... 관계당국 조사 중

도내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급식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제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

난 25일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수

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 해당 고등학교와 인접한 중학교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

26일 오전까지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해당 학교들은 이날 점심 급식을 취소하고 빵 등 대체식을 배급했으며, 저녁 급식도 취소했다. 인접한 중학교 역시 동일한 조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과 제주시 등은 이날 현장 긴급 점검을 벌였고, 이물질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대해기자

# "응원 연습은 학생 인권 침해... 조사해야"

### 청소년인권모임 기자회견

제주 백호기 응원 문화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청소년인권단체가 응원 문화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모임 '내다'는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호기 응원 연습은 인권 침해"라며 "응원 문화와 관련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라"고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학교들이 학생들을 응원 연습에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인권 침해적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학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에 대해 "반인권적 응원 연습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강대해기자

**최신 국내육성 감귤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도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도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전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도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점!!!**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도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행사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감귤묘목**

▲유라조생 1,3년생 ▲한라봉 2,3년생  
▲궁전 2,3,4년생 ▲황금향 2,3년생  
▲레드향 1,3,4,5년생 ▲하례조생 2,4년생  
▲천혜향 2,3,4년생 ▲레몬 4년생  
▲하귤 4,5년생 ▲오하라베니 3년생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견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증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 2~3년생  
천혜향 ..... 3~5년생  
황금향 ..... 3~5년생  
한라봉엠 ..... 3~6년생  
남진해 ..... 3~4년생  
성전온주 ..... 3년생  
하례조생 ..... 3년생  
탐라봉 ..... 3년생  
윈터프린스 ..... 3년생  
감귤평 ..... 3년생  
진지향 ..... 3년생  
탱자묘 .....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증자관리사 010-3690-2453